

이 자료는 2004년 3월 8일 17:00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농정의 원년
2004년 업무계획 발표문

2004. 3. 8.

농 립 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오늘은 금년도 농림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는 **농업·농촌종합대책을 시행하는 첫 해**입니다. 저희 농림부는 종합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업·농촌 정책 로드맵을 차질없이 실천하겠습니다.

먼저, UR이후 투융자에 대한 반성을 기초로 **투융자 집행·평가체제**를 새롭게 정비하겠습니다.

사전심사,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부실을 예방하고, 정책자금 취급을 일반은행에 단계적으로 개방하여 대농업인 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주요 정책에 대한 외부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관계 부처, 민간전문가, 농업인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적인 **투융자 사업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것입니다.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적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농산물 소비촉진, 다원적 가치 **홍보기능을 강화**하고 농업·농촌종합 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농정조직과 인력구조도 재편**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쌀 협상은 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관점에서 실리적으로 접근하면서 국내 쌀산업 대책도 빈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를 생산중립적 직불제로 개편하고, 쌀 소득보전 직불제는 소득 안정을 위한 보험 성격의 장치로 내실화하겠습니다.

쌀 전업농 육성을 위해 금년 중 약 8천ha의 농지가 2~5ha 규모의 농가에 이양되도록 집중 지원할 것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RPC)에 대한 경영 평가를 실시하고 최하위 등급 RPC에는 자금지원을 중단하여 합병을 촉진하겠습니다.

추곡 수매제를 공공비축제로 전환하기 위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둘째, 한·칠레 FTA 비준 후속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FTA 지원특별법 시행령을 3월중에 마련하고, FTA기금 운용계획과 FTA 이행지원 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칠레산 농산물 수입 급증에 대비한 긴급 수입제한 조치등 수입관리체계도 완비하겠습니다.

셋째, 가축방역 및 축산물 안전시스템을 확립하겠습니다.

가축방역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방역 활동을 평가해서 지원을 차등화하고, 시·군의 방역인력 보강 및 공익수의관계 도입도 추진할 것입니다.

위해요소중점관리제(HACCP)를 보관·운송단계까지 확대하고,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도입 및 쇠고기에 대한 생산 이력제를 시범 실시할 계획입니다.

넷째, 농업협동조합이 농업인 중심, 경제사업 중심으로 개혁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인들이 조합 상호금융 금리를 비교할 수 있도록 비교 공시를 실시하고, 일선조합의 선거관리 업무를 선거관리 위원회에 위탁하는 한편, 일선조합을 규모화하기 위해 「중장기 합병지원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중앙회는 회장을 비상임으로 전환하고 대표이사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농협법 개정안을 금년 6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농촌관광의 성공모델을 발굴하여 타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성공 유형과 요인을 홍보하고, 1사1촌운동, 체험학습 등 도·농교류 붐을 조성해서 농가소득과 연결되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시행되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농촌관광과 연계하여 농촌관광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도전이 예상되는 금년 한해, 10년 농정의 새로운 기틀을 세우고 농업인과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농림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도 자 료

- 제공일 : 2004. 3. 8.
- 제공자 : 농림부 기획예산담당관실
- 과 장 : 이양호
- 서기관 : 윤동진
- 전 화 : 500-1569

이 자료는 2004년 3월 8일 17:00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새로운 농정의 원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

□ 농림부는 3.8 대통령께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 업무보고 주요 내용

○ 2.23 발표한 농업·농촌 종합대책의 효율적 추진 시스템 구축

- 「선심사 후지원」 원칙, 범정부적 「투융자사업 평가위원회」 구성, 정책자금 취급의 단계적 개방 등 투융자 집행·평가 체제 확립
- 농촌관광·복지 전문가 충원, 희망보직제 등 농정조직과 인력 구조의 개편

○ 금년도 추진할 주요정책 과제

- 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 쌀 협상 전략 수립
- 직불제 확충, 전업농 육성, RPC 구조조정, 공공비축제 도입 등 쌀 산업구조 개편
- FTA 기금 설치 등 한·칠레 FTA 비준 후속대책의 차질없는 추진
- 시·군 방역인력 보강 등 가축방역 종합대책 수립·시행
- 상호금융 금리 공시, 선거관리업무 선관위 위탁 등 농협개혁 추진
-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농촌관광과 연계, 관광인프라 확충

□ 허상만(許祥萬) 농림부 장관은 3.8(月) 오후 청와대에서
금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께 보고하였다.

□ 許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지난 달 23일 확정된 「농업·
농촌 종합대책」의 효율적 추진 시스템을 완비하고 쌀
협상과 쌀 산업구조 개편 등 주요 정책과제 중심으로
농업·농촌 종합대책 로드맵을 차질없이 실천해 나가
겠다고 밝혔다.

○ 특히, 올해는 농업·농촌 종합대책의 시행 첫 해로서
금년 농정성과에 따라 10년 계획의 성패가 크게 좌우
된다는 점에서 2004년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 농림부는 UR이후 농업 투융자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투융자 집행·평가체제를 혁신하고,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홍보 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농정
조직 및 인력구조 개편으로 이를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 우선, 농업 투융자에 대한 농업인과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새로운 투융자 집행·평가체제를
마련키로 했다.

① 「선심사 후지원」 원칙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과 경영능력을
엄격히 심사하여 적격자를 선발하고

- ② 융자금 관리기관을 농협으로부터 분리·독립시켜 「**농업 정책자금관리단**」을 신설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예방해 나가기로 하였다
- ③ 또한, 정책자금 취급을 농협의 **일반은행에 단계적으로 개방함**으로써 대 농업인 서비스 경쟁을 유도키로 하였다.
- ④ 한편, **투융자 수용능력**을 높이기 위해 농가는 규모화·전문화, 협동조합과 민간업체는 조직화·계열화를 지원하면서,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농업 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역농업 클러스터 구축 등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 ⑤ 평가단계에서는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농업인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적 「투융자사업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평가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여 **여론을 수렴**해 나가면서 차년도 계획 수립에 피드백하여 사업 통·폐합, 내용 변경 등 우선순위를 조정할 방침이다.

□ 농림부는 종합대책 마련 등 그 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정에 대한 농업인과 국민들의 신뢰가 낮다고 자체 평가하고 **신뢰회복을 위한 개선방안**을 보고하였다.

- ① 사업별·품목별 정책고객관리(PCRM), 지역미디어, 농정순회 설명회 등을 적극 활용하여 **농업인 중심의 직접대화**를 강화하는 동시에
- ②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다원적 가치 홍보프로그램 제작·보급, 정책수립 단계의 국민 참여 등을 통해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적 지지기반**을 확대하고

- ③ 시기별·대상별 종합홍보 전략 하에 농산물 소비촉진, 농정홍보, 다원적 가치 홍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농업농촌홍보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 아울러, 종합대책의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정 조직과 인력구조도** 과감히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농림부는 생산기능을 축소하고 **농업 구조조정, 농촌사회 유지** 등 새로운 기능에 집중하면서 산하기관의 기능과 역할도 올해 안에 재정비하되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부터 조기에 실시할 방침이다.

- 여건 변화에 맞는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부처·지자체와 **인사교류를 확대**하고 농촌관광·복지·식품안전 분야 현장전문가를 충원하는 한편, 희망보직제 등 열린 인사제 도입으로 **인사운용도 혁신**하겠다고 보고했다.

□ 농림부는 금년 최대 농정현안인 쌀 협상과 관련, **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관점에서 단계적 협상 추진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하면서

- 한·칠레 FTA 비준에서와 같은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각계 여론 수렴 및 농업인 직접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기로 하였다.

□ 쌀 협상 이후 쌀값 하락, 농가소득 감소 등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비하여 직불제 확충·전업농 육성·미곡 종합처리장(RPC)구조조정·공공비축제 도입 등을 통해 쌀 산업의 체질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① 먼저, 현행 논농업 직불제를 생산 중립적 직불제로 개편하고 쌀 소득보전 직불제는 보험 성격의 소득안전 장치로 내실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개편 방안은 농업인 의견수렴, 현장 적용 가능성 검증을 거쳐 쌀 협상 결과에 맞추어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② 쌀 전업농 육성을 위해 금년 중 약 8천ha의 농지를 2~5ha 규모 농가에 집중 지원하고 영농규모화 사업의 지원조건도 개선할 계획이다.

③ 산지 유통의 핵심 주체인 RPC에 대한 경영평가를 4월까지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최하위 등급 RPC에 대해서는 정부 자금지원을 중단하고 통·폐합 RPC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구조조정을 본격 추진키로 하였다.

④ 앞으로 큰 폭의 보조금 감축이 이루어지면 현행 쌀 수매제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추곡수매제를 공공비축제로 전환하기 위해 금년 정기 국회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 한편, 한·칠레 FTA 비준 후속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FTA 기금 설치 및 FTA 이행지원위원회 구성 등 **FTA 지원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무관세할당물량(TRQ), 원산지 표시기준, 긴급수입제한조치(SG) 등 **칠레산 농산물 수입관리체계**도 철저히 마련함으로써 국내 산업 피해 발생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 농림부는 최근 잇따른 악성 가축질병 발생과 관련, 농가·지자체·중앙정부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방안을 마련, 5월말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가축방역 종합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 특히,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군 방역 인력보강 및 공익수의관계 도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지자체의 방역 활동을 평가해서 축산정책자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 등을 추진키로 하였다.

□ 또한, 농업협동조합의 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해 조합원들의 개혁의지를 바탕으로 자율적 구조개선을 뒷받침할 제도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다.

○ 일선조합의 상호금융 금리 비교 공시를 상반기중 실시하여 자율적 금리 인하를 유도하고 선거관리 업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하반기중 지역조합 중장기 합병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부실조합 판단기준인 순자본 비율을 2%에서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일선조합의 건전화·규모화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 농협중앙회 신·경 분리문제는 농업인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우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6월중 농협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기로 하였다.

* 중앙회장 비상임 전환, 대표이사 독립경영체제 확립, 일선조합의 선거관리 선관위 위탁, 전문경영인 도입 확대, 조합간 사업연합 설립 및 출자제한 완화 등

□ 한편, 주5일 근무 등과 관련 관심이 늘고 있는 농촌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성공사례를 적극 발굴·홍보하고 마을 지도자 육성, 관광테마 개발, 도농 교류 붐을 조성해 나가기로 하였다.

○ 특히 3~5개 인근 마을을 권역 단위로 묶어 특성화 개발을 추진하는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과 농촌관광을 연계하여 농촌다움 유지·보전과 농가소득 향상, 지역경제 발전의 선순환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금년 신규 도입, 3월중 공모를 통해 16개 권역을 선정할 예정

□ 끝으로, 농림부는 올해 업무혁신 비전을 **젊은 농림부**로 설정하고 **상설 업무 혁신팀 신설**, **주니어보드 활성화**를 통해 「**활력있는 조직**」, 「**찾아가는 농정**」을 구현키로 하였다.

○ 자기혁신문화 정착을 위해 매월 2회 조찬농정 포럼을 개최하고, e-농정브리핑, 직원들의 농장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행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 별첨 : 2004년 업무계획